

불교계 차상위계층 지원 문턱 높아

송파 세모녀 등 복지 소외계층 지원제 현실화에 관한 요구 ↑

저소득 복지지원 제도 홍보 미약

2월 26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집주인 앞으로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자살했다. 며칠 뒤에는 장애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겨게 살아가던 일가족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주일 새 경제난에 허덕여 자살한 빈곤층은 모두 열두 명. 대다수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이 있는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거지원, 근로장려금, 양육지원, 핸드폰 요금 감면 등 정부가 이들 계층에 지원하는 제도는 수 십가지에 이른다. 때문에 이들이 지원책에 신청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정부의 소극적 복지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모녀의 재정상태를 파악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제도 부검'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역시 빈곤층이 부담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를 손보기 위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한 3월 한달을 복지 소외계층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복지제 정비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복지관에서는 혜택 지원 대상 발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이나 부녀회 등을 찾아가 복지 소외계층 찾기에 힘써 왔던 것이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김은미 지역조직팀장은 "기본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수혜가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복지 소외계층 찾기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김 팀장은 "그때마다 일부 대상자들은 연이은 지원을 당당히 여긴다"며 복지혜택의 모순에 대해 애들러 비판했다. 골고루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한곳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한국의 복지제는 '모두 주거나 안주는(all or nothing)' 쪽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제의 모순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전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골칫거리

불교 복지 역사 20여 년

외형 커졌는데 콘텐츠는 빈약

기독교는 대출·취업지원 등

빈곤층 막기 위해 안전망 역할까지

전국적 네트워크 이용한

불교 복지 청사진 마련해야

다. 주민센터 내 복지 전달 공무원은 2~3명 수준으로, 1명당 많게는 1천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담당해야 한다. 불교계가 이런 한계를 메우는 데 일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성 없는 불교 복지

복지관운영으로 대표되는 불교 복지는 산하 복지시설이 1천 여개에 이른다. 복지관은 대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천종합복지관의 경우 저소득층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100세대 중 기초수급자가 68세대로 이용비율

이 가장 높다. 차상위 계층은 18세대에 불과하다. 프로그램도 목록, 생신잔치, 반찬 지원 등이 대다수다.

대표 단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경우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업이 선호하는 문화형, 재능기부 등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후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이미지 향상 효과가 있는 사회공헌 등 기업에 채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 복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 로드맵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권경일 복지영성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불교계 복지는 복지 청사진이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며 "복지 시설이 천 개가 넘는 등 양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복지관 위탁 운영을 독려하자 시설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결과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 전반을 훑을 수 있는 구체적 기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착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발굴하는 데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사각에 놓인 이들을 위해 불교가 당장 어떤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독교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그러나 타 종교계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정부가 매워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운영하는 'SOS뱅크'는 긴급재정난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출지원제다. 목회자나 사회복지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을 대신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무담보, 무이자에 상환기간도 대상자가 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시스템도 마련해놓았

다. 신청이 완료되면 SOS뱅크 관계자와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경기도 성남 교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신협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리 사채를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메자나 아이팩'을 만들어 신민공증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민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타 종교계의 현장성 높은 틈새 복지 전략은 자칫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충격완화장치역할을 특목히 해내고 있다.

조기룡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는 "사찰마다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개별적 노력이 있는 걸로 안다"며 불교 복지가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진단했다. 조교수는 "깊은 산 속까지 닿은 곳이 사찰이다. 교계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복지 대상을 발굴해 취업 지원 등의 센터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소장 또한 "불교계가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뛰어들어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바로잡고 사회운동 차원의 에너지를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불교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불교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동참을 이끌어 낼만한 주체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복지계 손질본'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불교 복지 또한 이를 계기로 방향 설정에 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어르신들 1년 동안 힘내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4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진행했다. 평균 4: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306명의 어르신은 미술관해설사, 탐골독립영화관 순회상영단 등 총 15개 분야에서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중 총로구정당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응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해외구호자금 4억원 확보

외교부 지원 민간협력사업자 선정

"긴급구호기금 확보는 대외적으로 자비나눔실천을 통한 한국불교세계화를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해외구호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함께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사업' 약정을 체결, 총 40만불(한화 약 4억원)의 해외긴급구호자금을 확보했다.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사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민간단체가 효과적인 긴급구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ICA, KCOC가 사업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필리핀에 태풍 하이옌이 발생했을 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억원을 편성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공이 컸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20만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태풍 혹은 지진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주택재건, 의료지원, 생계수단 복구 등은 물론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 난민지원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은 "필리핀 태풍 하이

옌 복구재건,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난민발생 등의 현재 진행 중인 재난들에 대한 지원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재단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라오스와 몽골에서의 재난예방사업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 이사 원경스님은 "기후변화, 전쟁 등 전세계에서 대규모 재난이 연속되면서 한국 불교도 자라붙이의 마음으로 국경을 넘는 자비나눔의 실천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라면서 "금번 긴급구호기금 확보로 한국불교의 해외긴급구호사업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호단체들 사이에서 역량을 발휘한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소 3년 이상의 해외재난 관련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새로 선정된 기관은 총 3곳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그 중 하나다.

이번에 사업약정을 체결한 단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기아대책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밀알복지재단, 어린이재단, 팀앤팀, 한국해비타트, 한국JTS 총 10개 단체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배현진 기자

효녀가수 현숙, 송산복지관 홍보대사 위촉

효 실천 앞장...대중 신뢰 높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현숙(사진 왼쪽)이 법일 스님과 환하게 웃고 있다.

효녀가수 현숙이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 복지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3월 4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효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등 홍보대사의 역할에 필요한 대중 신뢰가 높다"는 이유로 현숙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공연을 해온 현숙은 홍보대사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은 앞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노인복지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사회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1979년 가요계에 데뷔한 현숙은 한국여홍보대사, 보건복지부 치매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배현진 기자

동국대 스님 108명 장기기증서약

28일, 생명나눔 등록



동국대학교 석림회 스님 108명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섰다.

동국대학교 석림회 스님 10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섰다.

2월 28일 화계사에서 열린 석림회 동계연수 입학식에서 스님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5천명 달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스님 1천명 모시기'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이번 서약식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서약식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 주변에 이를 꾸준히 홍보해 온 정각원장 법타 스님과 교법사 마가 스님의 적극 주선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사업' 약정을 체결, 총 40만불(한화 약 4억원)의 해외긴급구호자금을 확보했다.

진로·적성·상담 안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탐동 873-2 (본부)
 - ☞ 지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 검색 정보 (010-5524-7053)

인재양성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저서 : 규명 1,2,3권 (한솔미디어)
실천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 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동방대 문화교육원, 학습진로상담사 과정
매주 금 오후 2시~5시(봄학기 신입생 모집)
* 학력불문, 진학관심자, 철학원 운영자.
(접수처 : 문화교육원 02-3663-9860)
- ◆ 개인 지도 : 입문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 수업일 : 매주 화·목요일
오전반 10시부터 ~
오후반 6시부터 ~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탐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규명철학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로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